

구급차에서 춤춘 구급대원들 논란



▲ 사진=flipboard.com

구급차 안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게시한 구급대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국 요크셔주앰블런스서비스(YAS) 소속 구급대원 리한나 히긴스(25)와 동료 헤티 프록터는 지난 15일 "휴식 중 짧은 춤"이라며 구급차 안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두 대원 앞으로는 위급 상황 시 환자를 운반하는 의료용 침대가 놓여 있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확실히 휴식 시간인 것 같다. 생명을 구한 후 긴장을 풀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격려가 나왔다. 한 SNS 이용자는 "휴식 시간에 무얼 하든 비난할 수 없다. 아버지를 살려준 앰블런스서비스 측에 경의를 표한다."고 응원을 전했다.

비난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아무리 휴식 시간이어도 위급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SNS 이용자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구급대원이 이런 시간이 있느냐. 동영상 찍을 시간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구급대원 리한나는 "재미 없으면 그냥 지나쳐라."고 답해 반감을 자극했다.

논란이 일자 YAS 측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와 구급대원 업무가 항상 우선이며, SNS를 사용하는 구급대원은 자신의 프로필이나 콘텐츠가 구급대원에게 기대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경고했다.

산불 피난민 위로한 노신사의 바이올린

대형 산불로 주민 수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피난민의 지친 심신을 달랬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지난 30일 사우스레이크 타호 전체에 대피령을 내렸다. 도라도 카운티의 '칼도르'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14일 새크라멘토 동쪽의 산림 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30일 현재까지 시카고보다 더 넓은 717km² 면적을 태웠다. 건물 600채가 불에 탔고, 최소 1만8,000채가 소실 위기에 놓였다. 험준한 지형에서 발생한 산불은 30일 강풍을 타고 더 멀리 번졌다. 인구 2만2,000명의 유명 관광지 사우스레이크타호 역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 모두 급히 피난길에 올랐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대피에 나서면서, 새크라멘토와 네바다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벨 스모더스(74) 역시 피난 행렬에 갇혀 오도가



▲ 사진=wvb.com

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스모더스는 "마을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피난 차량으로 꽉 막혔다. 5마일을 가는데 4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도로에 발이 묶이자 스모더스는 차 문을 열고 나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화재로 인한 걱정과 불안을 달랬다. 연기가 짙게 깔린 도로에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지자 다른 피난민도 하나둘 창문을 내리고 귀를 기울였다. 피난길에서 그의 음악은 모두에게 위안이 됐다. 결국 화마를 피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도시를 빠져나왔다.

아들 차 사주려고 동전 수만 개 내민 아빠



▲ 사진=oddely.com

중국의 한 자동차 판매장에서 직원들이 동전을 세는데 총동원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지난 15일, 중국 허난성 저우커우시의 자동차 판매장에 밀가루 포대를 잔뜩 짊어진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밀가루 팔아 번 돈인데, 이 돈으로 아들 차를 한 대 사주고 싶다."며 동전 17자루를 내밀었다.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 돈을, 그것도 어렵사리 장사하여 한 푼 두 푼 모았다는 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판

매 직원들은 한 자루씩 도맡아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관련 영상에는 매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판매 직원들이 밀가루 포대에서 동전을 꺼내 세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 담겨 있다. 판매 직원 첸모씨는 "동전을 세다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였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계산은 직원 20여 명이 3시간 넘게 매달린 뒤에야 끝이 났다. 직원들이 세 동전이 5만1,000위안(약 9,000달러)에 달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2019년 한 남성은 자동차 대금 일부인 13만 위안(약 20,000달러)를 모두 동전으로 계산했다. 2016년 장쑤성 타이저우시의 한 남성은 100만 위안(약 15만 달러) 넘는 차 두 대 값을 모두 동전으로 치렀다. 당시 동전을 세는 데는 직원 30명이 꼬박 6시간을 달려붙어 진땀을 흘렸지만 결국에는 저울에 무게를 달아 동전 개수를 추정했다.



사장님,
힘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